● 타운뉴스 칼럼

신년좌담(新年座談)

안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선배들 모임에 초대 받아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었다. 며칠 전,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화제는 자연히 이들과 관련된 한국 정치로 흘러갔다. 그날 자리를 마련한 선배가 신문과 라디오, TV 등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 좌중은 열띤 토론장이 되었다.

처음 얘기를 꺼낸 선배 이야기의 대부분은 각종 언론 보도 내용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 옮기고 있었다.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 당연히 자기와 같은 생각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했다. 설령 그 선배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분위기였다.

그때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선배가 한마디 했다.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는 자리를 봐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다른 선배가 말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더 얘기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자리를 옮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고 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다.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흐름 속으로 몰아간다. 라디오, TV, 신문, 거기다 각종 SNS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주도해가다 보니 그 커다란 힘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큰 흐름과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혹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 받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자신의 잘못된 사고 구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현상은 언론과 SNS 등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즉 언론과 SNS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견해와 입장을 따르도록 암암리에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언어폭력을 비롯해서 개인 정보를 파헤쳐 인신공격을 가하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까지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예사이다. 문자 그대로 당동벌이(黨同伐異: 하는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는 한패가 되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배척하는 것)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커다란 물줄기처럼 흘러가는 세력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살 수밖에 없다. 아니 열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입을 열면 그대로 매장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SNS상에서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 선택하며 살 뿐이다. 그저 언론과 SNS에서 떠들어대는 것 중에서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 마치 장보러 가서 물건을 고르듯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각종 뉴스들 중에서 그럴 듯한 것을 선택해 내 것으로 삼으면 된다. 언론도 자신들의 보도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 있더라' 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사실 보도와 공익 추구라는 이념은 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만을 고민하는 이익집단이 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적당히 시세에 편승하여 자기의 입장이라며 전하는 뉴스 대부분은 그때그때 편한 대로 권력에 기대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면서 회사의 이익이나 사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각종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들은 '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일까' , '사실에 근거하여 기사가 작성된 것인가' , '그런 기사를 쓰는 의도는 무엇인가' , '진실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겉에 보이는 것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를 수도 있기에 보다 더 신중히 읽고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의 물결에 휩쓸려 우세한 여론에 편승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떠다니게 될 것이다.

식당에서 나와 차 세워 둔 곳까지 가는 동안에도 선배들은 얘기를 멈추지 않았다. 작별인사를 하고 차문을 여는 내 뒤통수에다 대고 선배 한 분이 덧붙였다. "현 시국에 대해 글로 좀 잘 쓰게나."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제1458호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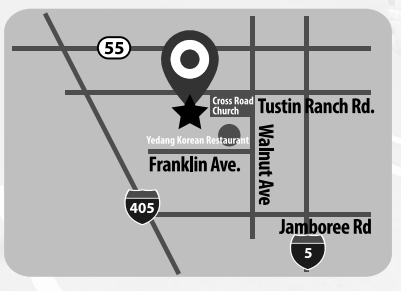
TownNews QR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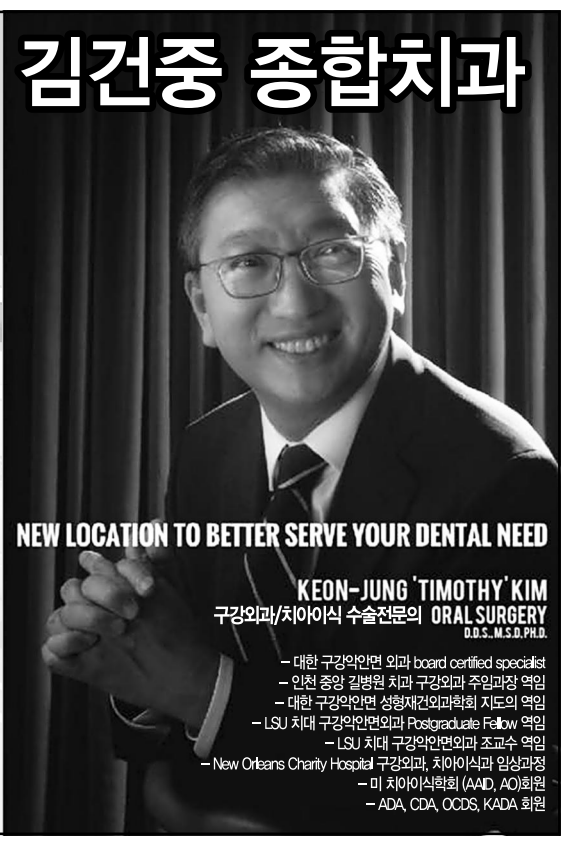
타운뉴스 칼럼 13
커뮤니티 소식 15,17
나는야 1.5세 아줌마 20
법률 23
여행 25
세상에 이런 일이 27
전문인 칼럼 28,29,40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29
숨은그림 찾기,답/낱말 퀴즈,답 30/51,30/56
깔깔 38
부동산/경제 39
건강 40,45,53
한인업소 안내지도 44,46,62,64
그림여행 47
연예 49,51
종교 52
안내광고 54,55
Domestic 56
요리 57
여성 61,63

가주장의사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TEL
대표: 정 영 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562)622-9393

OOH! PUPPY

Grooming
15829 E. Imperial Hwy. La Mirada, CA 90638 562.947.4530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www.timkimdental.com
터스틴 김건중 종합치과
38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 4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
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
일반 · 미용치과 전문
Maria Capiral, DDS
William Wang, DDS
Nguyen Diemphi, DDS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임프란트/구강외과 전문
Timothy Kim, DDS, MS, Ph.D
뼈가 부족한 분에서도 자가혈에서 채취한 PRP와 CGF를 이용한 뼈이식과 임플란트 수술 가능
▪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 · 무출혈 · 무통 잇몸치료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tel. 714-760-4988 949-679-6000
(San Diego) 760-757-9876 760-479-9876



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이식 수술전문의 ORAL SURGERY
D.D.S., M.S.D.PH.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성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치아이식과 임상과정
– 미 치아이식학회 (AAID, AO)회원
– ADA, CDA, OCDS, KADA 회원